

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성장 전망

□ 세계은행, 2003년도 세계 경제에 대해 다소 낙관적인 전망

- 세계은행(World Bank)은 2일 배포된 2003년도 Global Development Finance Report에서, 금년도 세계 경제성장은 현재의 이라크 전쟁 및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였음.
 - o 2002년도 전 세계 실질GDP성장률이 작년 1월의 보고서에서 예상했던 2.5%보다 0.8% 포인트 낮은 1.7%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, 올해에는 2.3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- 세계은행은 이라크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 2003년도의 평균 석유가격을 2002년도 평균인 배럴당 24.9달러보다 높은 배럴당 26달러로 예측하면서도,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현재 전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을 낙관하고 있음.
 - o 특히,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(SSA) 지역 국가들에 대해서는 올해 3%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음. 이는 올해 1월의 보고서에서 예상했던 3.2%보다는 다소 낮아진 수치이나, 작년의 2.6%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임.

□ 아프리카 경제, 대외적 요소보다 대내적 요소에 많은 영향 받아

- 2002년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성장은 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, 세계경기 등의 대외적 요소보다는 국내정치 혼란, 기상이변 등의 대내적 요소로 인해 악영향을 받았음.

- 나이지리아와 코트디부아르의 경우 내전으로 인해 경제상황이 악화되었으며, 중부 및 남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농업생산이 위축되어 3,000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기아의 위기에 처해 있음.
 - 또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창궐하고 있는 에이즈(AIDS)로 인한 인명의 손실은, 이 지역 국가들의 생산성을 떨어뜨려 경제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기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음.
-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, 현재 세계은행은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들어 금년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성장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음 :
- 이 지역의 2003-04년 기상조건이 작년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업생산의 증가가 기대됨.
 - 이 지역 국가들의 최대 수출시장인 EU의 경기가 2004-05년 중에는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, 이는 EU의 수입수요 증가로 이어져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출 증대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됨.
 - 향후 2년간 세계경제가 회복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지역 국가들의 주요 수출품에 속하는 비(非)귀금속 광물의 국제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됨.

전문연구원 오경일 (☎3779-6646)
E-mail : oki1122@koreaexim.go.kr